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3] 읽기 준비 단계 (2024.09)

빠른 정답: ② / ③ / ③

[글 설명] 이 글은 읽기 발달 단계를 위계화했을 때, 그 첫 단계에 해당하는 읽기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험의 양상, 그리고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읽기 준비 단계는 읽기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의 영·유아는 글자를 깨치지 못하는 못하더라도 읽기 발달을 위한 여러 유의미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읽기 발달은 글자를 깨치기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따라서 읽기 준비 단계에서의 경험은 이후의 읽기 발달 단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 [출제 의도] 세부 내용 파악

- ① 1문단에서 '대개 '읽기 준비'를 하나의 단계로 보고, 이후의 단계를 '글자를 익히고 소리 내어 읽기', '의미를 이해하며 읽기', '학습 목적으로 읽기', '다양한 관점으로 읽기', '의미를 재구성하며 읽기'의 순으로 나눈다.'라고 하였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의미를 재구성하며 읽는 단계는 읽기 발달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 ② 3문단에서 영·유아의 다양한 읽기 경험을 설명하면서 '의사소통의 각 영역인 듣기·말하기·읽기·쓰기는 서로 영향을 주며 함께 발달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의사소통 각 영역이 상호 간의 작용 없이 발달한다는 것은 읽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③ 2문단에서 능숙한 독자는 독서를 하는 중에 독서 환경이 변할 경우 그에 적합한 새로운 독서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 ④ 1문단에서 '이 연구들에서는 읽기 행동의 특성이나 글에 대한 이해 수준 등에 따라 읽기 발달 단계를 위계화한다.'라고 하였다.
- ⑤ 1문단에서 '대개 '읽기 준비'를 하나의 단계로 보고, 이후의 단계를 '글자를 익히고 소리 내어 읽기', '의미를 이해하며 읽기', '학습 목적으로 읽기', '다양한 관점으로 읽기', '의미를 재구성하며 읽기'의 순으로 나눈다.'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할 때, 글자를 습득하고 소리 내어 읽는 단계는 학습을 목적으로 읽는 단계보다 선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출제 의도] 세부 내용 추론

- ① 3문단의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따라 말하는 것, 들은 단어나 구절을 사용해 문장을 지어 말하는 것'으로부터 적절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 ② 3문단의 '타인의 책 읽는 모습을 보며 글의 시작 부분, 글자를 읽는 방향'을 알게 된다는 것과 '책 읽는 흥내를 내는 것'으로부터 적절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 ③ ㉠(읽기 준비 단계)에서 영·유아는 글자를 깨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에서 영·유아는 '읽는 흥내'를 낼 뿐, 글에 나타난 여러 단어의 뜻을 명확히 알고 글자를 읽지는 못한다.
- ④ 3문단의 '읽어 주는 것을 들으며 그림이나 글자 형태로 끄적거리는 것'으로부터 적절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 ⑤ 3문단의 '읽어 주는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을 기억해 모방하기도 한다.'로부터 적절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3. [출제 의도] 다른 견해와의 비교

- ① [A]에는 '생활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지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나, <보기>에는 '일상에서의 자연스러운 읽기 지도'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따라서 [A]와 달리 <보기>가 이러한 읽기 지도를 강조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A]에서는 '읽기 발달은 일정한 시기에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깨치기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였다. 이와 달리 <보기>에서는 '읽기 지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에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글자를 깨치기 전의 경험이 읽기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은 <보기>가 아니라 [A]이다.
- ③ [A]에서는 '읽기 발달은 일정한 시기에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깨치기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였다. 이와 달리 <보기>에서는 '읽기 지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에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두 내용을 비교해 볼 때, [A]와 달리 <보기>는 글자 읽기의 기초 기능을 배운 후부터 읽기 발달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보기>에서는 '듣기와 말하기를 가르친 후 읽기, 쓰기의 순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달리 [A]에서는 '의사소통의 각 영역이 같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지도가 읽기 발달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였다.
- ⑤ [A]에서는 '읽기 발달은 일정한 시기에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깨치기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였다. 이와 달리 <보기>에서는 '읽기 지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에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에 읽기를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에는 <보기>만 해당한다.

## [4~7] 개정 무한계설과 개정 한계설 (15년 10월 고3 A형)

빠른 정답: ④ / ⑤ / ⑤ / ③

[연계]: EBS 수능특강 ‘기본권과 제도 보장’ (164p)

[글 설명] 헌법의 개념을 제시하고, 헌법을 어디까지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인 개정 무한계설과 개정 한계설을 소개하고 있다.

4. [출제 의도]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 ③ 네 번째 단락을 통해 개정 한계설은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을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세 번째 단락 마지막을 통해 실질적인 규범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은 개정 무한계설임을 알 수 있다.

5. [출제 의도] 사례를 통해 제시된 개념을 이해한다.

- ⑤ A 국가는 통치 형태가 군주제에서 민주주의로 바뀌었으며, 군주제에서의 헌법은 국민들이 선출한 의회를 통해 새로운 헌법으로 바뀌었으므로 헌법의 파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6. [출제 의도] 외적 준거를 제시된 개념에 적용한다.

- ⑤ 형식 논리를 중요시한다는 측면에서 개정 무한계설과 법률 실증주의는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자연법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 실증주의자들은 개정 한계설에 동의하지 않는다.

7. [출제 의도] 인과 관계와 상관 관계를 추론한다.

- ③ 피력하다'는 생각하는 것을 털어놓고 말한다는 의미이다.

## [8~11] 음수의 데이터 표현 방법 (2020년 3월 고3)

빠른 정답: ① / ⑤ / ⑤ / ②

[연계] EBS 수능특강 ‘주산과 컴퓨터의 보수’ (217p)

[글 설명]

컴퓨터는 0과 1로 표시되는 비트를 최소 단위로 삼아 데이터를 표현한다.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비트의 개수를 1워드라고 한다. 4비트의 컴퓨터로 양의 정수를 표현한다면 최상위 비트를 0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3개의 비트로 정수의 절댓값을 나타내면 된다. 예를 들면 +1은 0001, +2는 0010, +3은 0011이다.

음수를 표현한다면 최상위 비트를 1로 표시하고 나머지 3개의 비트로 정수의 절댓값을 나타내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부호화 절댓값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계산값이 부정확하고, 0이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는 문제점이 있다.

1의 보수법은 1의 보수를 사용하여 음수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1에 대한 1의 보수는 0이며, 0에 대한 1의 보수는 1이다. 1의 보수법은 계산값이 정확하지만 0이 0000과 1111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는 문제점은 해결하지 못한다.

1의 보수에 다시 1을 더하는 ‘2의 보수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다. 2의 보수법에서 -1은 1111, -2는 1110, -3은 1101이며, 0은 항상 0000으로 표현된다.

8. [출제 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 ① 1문단에서, 컴퓨터에서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 가장 왼쪽 자리인 최상위 비트를 0으로 표시하여 양수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양의 정수인 경우 최상위 비트를 0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이유에 대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2문단에서 부호화 절댓값은 0을 0000과 1000으로 표현하여 표현의 일관성과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호화 절댓값에서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 ‘0을 0000과 1000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 ③ 컴퓨터에서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2문단에서 부호화 절댓값, 3문단에서 1의 보수법, 4문단에서 2의 보수법을 설명하였다.
- ④ 1문단에서 컴퓨터는 0 또는 1로 표시되는 비트를 최소 단위로 삼아 데이터를 표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컴퓨터 내부에서 데이터를 표시하는 최소 단위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 ‘0과 1로 표시되는 비트’라고 대답할 수 있다.
- ⑤ 2문단에서 부호화 절댓값에서는 오버플로를 처리하는 별도의 규칙이 없기 때문에 계산값이 부정확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호화 절댓값의 연산이 부정확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 ‘오버플로를 처리하는 별도의 규칙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9. [출제 의도] 핵심 정보를 파악한다.

- ① 부호화 절댓값과 1의 보수법 모두 오버플로가 발생할 수 있다.
- ② 4비트를 1워드로 처리 하는 컴퓨터의 경우 부호화 절댓값과 1의 보수법 모두에서 정수의 절댓값을 나타내는 데이터 비트는 3개이다.
- ③ 부호화 절댓값과 1의 보수법 모두 음의 정수를 표현할 때 최상위 비트는 1이다.
- ④ 부호화 절댓값은 계산값이 부정확한 반면, 1의 보수법은 계산값이 정확하다.
- ⑤ 부호화 절댓값으로 음의 정수를 표현한다면 최상위 비트는 1로, 데이터 비트는 정수의 절댓값을 이진수로 나타내면 된다. 예를 들어 -1은 1001, -2는 1010, -3은 1011이 된다. 반면 1의 보수법으로 음의 정수를 표현한다면 최상위 비트는 1로, 데이터 비트는 정수의 절댓값에 대한 1의 보수로 나타내면 된다. 예를 들어 -1은 1110, -2는 1101, -3은 1100이 된다. 따라서 부호화 절댓값으로 표현한 음의 정수를 1의 보수법으로 표현한다면 데이터 비트가 서로 다르다.

10. [출제 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 ① (가)의 경우 0100+1000이므로 1100이 되어 오버플로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② (가)의 경우 1의 보수법을 이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1의 보수가 활용된다. (나)의 경우 2의 보수법을 이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1의 보수를 구한 다음, 다시 1을 더할 것이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1의 보수가 활용될 것이다.
- ③ (가)의 4는 양의 정수이므로 데이터 비트는 이진수 100으로 표시된다. (나)의 -4는 2의 보수 법으로 데이터 비트가 나타날 것이다. 이를 구하면 -4의 절댓값 4를 이진수로 표현한 100에 대한 1의 보수 011에 1을 더한 100이 된다.
- ④ -3-4를 2의 보수법을 이용하여 표현하면 1101+1100이므로 계산값 이 11001이 되어 오버플로가 발생한다. 2의 보수법에서 오버플로가 발생하면 초과된 비트를 버린다고 하였으므로 1001이 된다.
- ⑤ (나)의 경우 2의 보수법을 이용하여 계산한다고 하였으므로, -4의 절댓값인 4를 이진수로 나타낸 100에 대한 1의 보수 011에 1을 더한 후 최상위 비트 1을 덧붙여야 한다.

11. [출제 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 ②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에서 1의 보수법으로 0은 +0인 0000, -0인 1111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다. 이때 1111의 데이터 비트에 1을 더하여 2의 보수를 구하면 10000이 되고, 초과된 비트를 버리면 0000이 되어 2의 보수법에서는 0이 0000으로만 표현된다.

[12~17] (가) 홍병선, <상상력의 철학적 근거> / (나) 김상환, <왜 칸트인가> (2022년 7월 고3 학평)

빠른 정답: ② / ② / ⑤ / ④ / ③ / ①

12. [출제 의도]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 ① (가)와 (나)는 모두 상상력에 대한 학자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지만, 여러 학자의 견해를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 ② (가)는 상상력을 신체적이며 선천적인 기능으로 파악한 기존의 관점과 달리 정신적이며 후천적인 기능으로 파악한 최초의 철학자로 평가되는 ‘흄’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나)는 상상력을 경험적 차원에서 파악한 기존 개념과 달리 선형적 차원으로 상상력을 연구한 ‘칸트’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 ③ (가)는 상상력을 기억과 비교하고 있지만,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나)는 재생적 상상력과 생산적 상상력을 비교하고 있을 뿐, 상상력을 다른 개념과 비교하며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 ④ (나)는 상상력의 개념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상상력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⑤ (가)는 상상력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떠한 긍정적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 않다.

13. [출제 의도]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 ① (가)의 4문단에서 ‘상상력이 가지고 있는 항상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대상에 대한 인상들 간의 단절을 넘어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② (가)의 2문단의 ‘상상력이 인상을 만들어 낼 수는 없지만’을 보면, ‘흄’은 상상력이 인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3문단에서 ‘임의로 결합된 관념은 무의미한 환상에 불과하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④ 2문단에서 ‘기억에 의해 재생된 관념은 상상력에 의해 재생된 관념보다 훨씬 생생하고 강렬하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⑤ 1문단에서 ‘흄은 인상을 통해 이미지를 재생시키는 능력을 상상력이라 보았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14. [출제 의도] 사례에 적용하여 글을 이해한다.

- ① 대상에 의해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주어진 것을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능력이 감성이다. 따라서 아이스크림을 차갑다고 느끼는 것은 감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절하다.
- ② ‘칸트’는 이성을 통해 수많은 지식들을 영혼, 우주, 신이라는 이념으로 수렴하여 체계화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적절하다.
- ③ 지성은 개념에 근거하여 주어진 상황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능력인데, 빗소리를 듣고 태풍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절하다.
- ④ 감성의 내용을 지성에게 전달하는 것은 상상력, 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지성의 능력이므로 적절하다.
- ⑤ 장미꽃을 바라보며 다양한 감각들을 느끼는 것은 대상에 대한 감각을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능력인 감성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 장미꽃이 빨간색이라고 판단하여 지식을 축적하는 것은 이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5. [출제 의도] 정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① ㉠은 다양한 감각들을 재생하여 결합하는 능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은 도식을 능동적으로 만드는 능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칸트는 상상력을 감성과 지성의 매개자로 보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은 무질서하고 다양한 감각들을 훑어본 다음 훑어본 것을 재생하여 결합하는 능력이며, 이는 ㉠에만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 ⑤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선형적 형식은 도식이며, 이러한 도식을 만드는 능력은 ㉡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6. [출제 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이해한다.

- ① ‘흄’은 상상력을 인상을 통해 이미지를 재생시키는 능력이라 여겼고, 그러한 관념을 토대로 대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의 견해에 동의할 것이다.
- ② ‘칸트’는 생산적 상상력으로 도식을 창조하여 자유롭게 응용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의 견해에 동의할 것이다.
- ③ ‘칸트’는 인간의 인식 능력을 ‘감성’, ‘상상력’, ‘지성’, ‘이성’으로 구분하였고, 상상력을 감성과 지성을 매개하는 능력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상상력을 감각에 포함된 능력이라 판단한 ㉣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④ ‘흄’은 인상을 감각과 같이 대상에 대한 경험의 직접적인 재료로 보았기 때문에 ㉤의 견해에 동의할 것이다.
- ⑤ ‘흄’은 상상력을, 생각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능력으로 보았으며, ‘칸트’는 상상력이 없다면 인식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흄’과 ‘칸트’ 모두 ㉤의 견해에 동의할 것이다.

17. [출제 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 ① ㉔의 '내리다'는 '판단, 결정을 하거나 결말을 짓다.'라는 의미로, '오랜 토론 끝에 결론을 내리다.'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값이나 수치, 온도, 성적 따위가 이전보다 떨어지거나 낮아지다.'라는 의미이다.
- ③ '컴퓨터 통신망이나 인터넷 신문에 올린 파일이나 글, 기사 따위를 삭제하다.'라는 의미이다.
- ④ '탈것에서 밖이나 땅으로 옮겨가다.'라는 의미이다.
- ⑤ '먹은 음식물 따위가 소화되다.'라는 의미이다.

[18~21] 임방 - 「눈을 흘며 옥소선을 엮는다」 (2020년 11월 고 2 학평)

빠른 정답: ③ / ② / ① / ①

18. [출제 의도]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 ① 자란과 도령이 도망한 후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도령이 자란을 찾아가는 동안의 힘겨운 상황을 누추한 외양을 통해 묘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윗글에는 전기적인 요소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도령이 이별할 때 의연한 태도를 보이는 원인에 대해 서술자가 개입하여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이야기의 전개 도중 예전에 도령이 짚을 뛰쳐나온 이후 짚에서 있었던 일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9. [출제 의도] 인물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이해한다.

- ① 도령이 ㉠에서 ㉡으로 이동한 이유는 부친이 ㉠에서 관찰사의 임무를 마치고 대사헌에 임명되어 조정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므로 적절하다.
- ③ 도령이 ㉢에서 ㉣로 향한 것을 ㉢에 있던 친구들은 알지 못한 채 ‘요사한 여우에게 흘려서 죽었거나 호랑이 밥이 된’ 것이라 생각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의 인물들이 갑자기 된 직접적인 원인은 도령과 자란이 ㉢에서 ㉣으로 도망쳤기 때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도령이 ㉢에서 ㉣로 향한 것은 과거 ㉠에서 헤어진 자란이 보고 싶어졌기 때문이므로 적절하다.
- ⑤ 도령이 ㉢에서 ㉣으로 이동한 것은 ㉢에서 만난 자란과 함께 살기 위해서이므로 적절하다.

20. [출제 의도] 외적 증거에 따라 감상한다.

- ① 양반인 도령은 이별에 대해 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기녀인 자란은 도령과 이별할 때 목메어 울며 도령의 얼굴을 차마 보지 못했을 뿐이므로, 신분 질서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의 의지대로 행동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도령이 실성한 모습으로 자란을 찾아가는 것은 사랑의 감정 때문이므로, 이를 두고 인간의 본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③ 도령과 자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자란의 베 짜기와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 갔고, 자란이 옷가지와 패물을 팔거나 이웃과 잘 지내 환심을 산 결과이므로 여성 인물의 역할이 확대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④ 자란이 불효의 문제를 제기하자 도령이 눈물을 흘리며 동의하고 있으므로, 주인공들이 효를 중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⑤ 자란은 과거 급제의 당위성으로 부모님을 다시 모실 수 있는 효와 세상에 홀로 나설 수 있는 입신양명을 말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유교적 가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21. [출제 의도] 인과 관계와 상관 관계를 추론한다.

- ① [A]에서는 도령이 이별에 연연해하지 않을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며 염려하는 부친을 안심시키고 있고, [B]에서는 자란이 외진 산골에서 늙어 죽을 수도 없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자신들의 상황을 환기하며 도령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A]에서 도령은 부친의 장점을 언급하며 부친의 성품을 칭송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B]에서 자란은 도령에게 명령을 거듭하며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A]에서 도령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지 않으며, [B]에서 자란은 도령의 의견에 동의하며 도령의 삶의 방식을 칭찬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A]에서 도령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근거로 들지 않으며, [B]에서 자란은 도령의 신분적 위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2~27] (가) 김종길, '문' / (나)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다) 유한준, '잊음을 논함' (2024.11)

빠른 정답: ② / ① / ③ / ③ / ② / ⑤

[글 설명]

(가) 이 글은 어두운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희망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문'이 닫혀 있는 모습에서 암울했던 시절을 떠올리고 있으며, 새벽이 오며 '문'이 열리는 모습을 통해 암울했던 시절이 지나고 희망에 찬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감격을 표출하고 있다. 이 시가 해방 직후인 1947년에 발표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가)는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대가 지나고 해방을 맞이하는 감격을 표출한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수양의 늘어난 가지가 담을 넘는 과정과 그 의미를 통해 제약을 넘어서서 미지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한 용기와 협력의 가치를 탐구한 작품이다. 화자는 '~은/이 아니었을 것이다', '~ 아니었으면', '~ 못했을 것이다'와 같은 부정 표현의 진술들을 활용하여 가지가 담을 넘는 데에 원동력이 되어 준 존재들을 부각하면서, 심지어 가지에게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들, 즉 비나 폭설, 그리고 담 자체마저도 가지가 신명 나게 담을 넘는 시도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 잊어야 할 것과 잊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한 사유를 통해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한 깨달음을 전해 주고 있다. 글쓴이는 천하의 걱정거리가 잊어도 좋을 것은 잊지 못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는 데서 나온다고 말하며, 잊어도 좋을 것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삶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내적인 것을 잊고 외적인 것을 잊지 못하는 삶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22. [출제 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② (가)에서는 섹체어 '푸른'이 3연, 4연, 5연, 6연에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나)에서는 1연과 3연에서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을 것이다'와 2연에서 '~이(가) 아니었으면'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확인할 수 있다.

23. [출제 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①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해들 적마다' 벽에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화자는 이러한 모습이 천년을 이어왔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역사와 자연이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 뿐 이를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4. [출제 의도]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③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는 대상은 '담'이라고 볼 수 있다. 화자는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을 '신명 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가지가 '담의 정수리를 타 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5. [출제 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

③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치'는 것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그릇된 상황이다. 글쓴이는 그릇된 가정적 상황을 먼저 제시한 후 ㉠와 같은 질문을 던져 이 상황이 옳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가 글쓴이가 제시한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6. [출제 의도]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② (가)에서 '문'은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앓고 세월은 소리 없이 쌓여 있는 '천 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자리를 지켜 내는 모습을 보인다.

(나)에서 '가지'는 담을 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자신의 영역을 '담 밖'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7. [출제 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⑤ (나)에서 화자는 '담'이 가지에게는 넘고자 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도박'의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담'이 없으면 넘어설 대상조차 없기 때문에 '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담'이 '가지'에게 양면적 속성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에서 '예의'나 '분수'는 잊지 않아야 할 대상이므로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는 존재로 볼 수 있다.

[28~31] 이청준, 「가면의 꿈」 (2017 LEET)

빠른 정답: ③ / ③ / ① / ①

[32~34] (가) 남도진, 「낙은별곡」 / (나) 윤양래, 「갑극만영」  
(2024년 5월 고3 학평)

빠른 정답: ③ / ② / ④

32. [출제 의도]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 ③ (가)에는 ‘어저 내 신세를 내 이르니 자네 들소’에서 ‘자네’에게, (나)에는 ‘허천강 건너편에 나날 뵈는 저 봉화야 ~ 편한 소식 전할쏘냐’에서 ‘봉화’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3. [출제 의도]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 ② ㉠에는 ‘동지 밤 눈 온 후에 더운 방에 이불 덮고’ ‘해 돋도록’ 늦잠을 자며 여유롭게 일상을 만끽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또한, ㉡에는 신하와 임금의 함께 즐기던 옛 시절을 꿈에서라도 볼 수 있다면 매일 ‘밤낮 자’고 싶다는 것에서 바라는 바에 대한 화자의 간절함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34. [출제 의도]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 ④ (나)의 <1수>에서 ‘허천강 건너편’의 ‘봉화’를 보며 ‘목멱산’ 아래에 있는 ‘내 집’을 떠올리는 것은 변방으로 유배를 간 작가가 유배 전에 살던 집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현재 작가는 이전의 삶과는 단절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가)에서 ‘대루 원에 서성이’는 사람에게 ‘내 신세’를 이르는 것은 속세에서 관직에 나간 사람들은 고단하고 괴로운 삶을 살지만, 자신은 속세를 떠나 자연에서 한가하고 여유롭게 살고 있어 현재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일 뿐 작가가 이전의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